

투데이 칼럼

영원한 로비스트 박동선

‘코리아게이트’ 주역 박동선(89)씨가 별세했다. 그는 1970년대 말 한미 관계를



정복규
논설위원

미국 정치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 의회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빈소 앞에는 ‘민간 외교관’ ‘한국의 제1호 로비스트’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일본·케냐·이집트·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우크라이나·레바논·요르단·오만 등 각 국가 대사관에서 보낸 화환이 놓여졌다. 코리아게이트는 고인의 애국을 위한 결단이었으나,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생전 고인은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1970년대 한국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애국을 위해서 로비라는 후진적인 방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생전 고인은 중국 자본으로 잡식된 아프리카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인은 가나, 케냐, 콩고 정상들과 친분이 있었다. 고인은 별세 전까지 멕시코 정부와 총 3조원 규모

의 복합화력발전소(LNG)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10월 취임 예정인 멕시코의 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파르도와 협력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나마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했는데, 멕시코 정부가 그것을 벤치마킹해 발전소를 지어달라는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한다.

코리아게이트 당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고인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고인은 로비 자금을 사비(私費)로 충당했다.

이어 “별세 1~2주전까지도 전화로 사업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비스트 일에 매진하며 국가에 이바지했다”고 했다. 고인은 영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에 능통했던 민간 분야의 외교관이었다.

전남 순천이 제2의 고향이라며 그곳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에

외국 인사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1950년대 말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 학생회장으로 등안인이 처음 뽑혔다.

미국 학생들은 전쟁 폐허인 한국을 잘 몰랐지만 친화력 좋은 박동선은 좋았다. 주유소 회사(미용상사) 막내 아들인 박씨는 1960년대 워싱턴에 사교 클럽인 ‘조지타운 클럽’을 열었다.

존슨 전 대통령과 포드 부통령, 상원의원 등이 드나들었다. 박씨는 미국 입영 식량을 미 정부가 사들여 한국에 원조하는 프로그램을 중개해 돈을 벌었다. 농업 지역 미 의원들과 가까워졌다.

1970년 한국은 안보·경제가 모두 위기였다.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했고 미국 원조도 대폭 줄었다. 미군이 완전히 빠지면 경제 개발에 써야 할 돈을 군사 분야로 돌려야 했다. 당시 한국과 처지가 비슷했던 대

만은 효과적 로비로 미국 지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일권 총리가 친분이 있던 박동선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씨는 ‘한국식’으로 워싱턴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1976년 10월 워싱턴포스트는 “박동선과 중앙정보부가 미 의회에 최대 100만 달러의 현금 등 불법 로비를 했다”고 보도했다. ‘코리아게이트’의 시작이었다. 한미는 2년간 이 문제로 갈등했다.

한국에 있던 박씨는 신변 보장을 받고 미 의회에서 증언했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여유도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 연루를 부인하며 “애국심으로 정치 자금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생 이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미 정치인은 90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유죄 판결은 하원의원 1명뿐이었다. ‘게이트’가 마무리된 후 박씨는 인터뷰에서 “끝까지 혼자 모든 걸 뒤집어썼더니 사건 후 오히려 로비 일거리가 늘더라”고 했다.

일본·중국·중남미 등에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코리아게이트’를 조사한 미 의회 보고서는 ‘박씨 활동이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1970년대 미 의회는 한국에 대한 15억 달러 군사 원조를 승인했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도 수그러들었다.

사설

제9회 해밀수채화협회 회원전

제9회 해밀수채화협회 회원전이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시 작가는 고은희, 김봉훈, 김은아, 김정심, 김중숙, 김진화 박정자.

박찬, 박현주, 서민순, 송인호, 손은하, 송옥남, 송인숙, 이민란, 이영란, 이지연, 이초희, 이형란, 임미경, 임의정, 임정순, 전경희, 정현희, 조효라, 최수영, 함대승, 한중희 등이다.

수채화(watercolor, 水彩畵)의 수채물감은 투명하지만 아교를 섞어 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는 불투명 그림물감·구아슈라고 한다. 투명수채는 안료의 생생함과 광택을 살려주고 능란한 필치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림 재료로 각광받는다.

투명수채와 다른 회화재료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투명성이다. 수채화 기법에서 백색은 백색의 종이 자체를 이용하며, 색채의 농도는 물감을 물로 희석시켜 조절한다.

유화 작가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하나의 색채 위에 다른 불투명한 색채를 덧칠할 수 있다. 그리고 백색은 불투명한 백색으로 만들어진다.

수채화가의 기법은 이와 정반대로 흰색을 본질적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흰면을 남겨두어 밝은 색을 살린다.

백색은 백색의 종이 자체를 이용하며 가장 어두운 강조색은 튜브에서 짜낸 물감을 그대로 쓰거나 물을 적게 섞어 쓴다. 그 밖에 물감을 물로 희석시켜 색채의 농도를 조절한다.

물감에 물을 많이 섞을수록 종이 색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주홍색은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하면 차가운 분홍색으로 나타날다.

물을 거의 섞지 않은 물감을 표면이 거친 종이에 붓으로 눌러서 칠하는 경우도 있다. 해밀수채화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미 대선 TV 토론

미국 대선을 8주 앞두고 승패의 최대 분수령이 될 TV 토론이 최근 끝났다. 90분간 이어졌던 할부였다. 해리스는 ‘미래’ ‘국민’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방점을 둔 채 트럼프를 압박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실패’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해리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특화 힘을 주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다시 선출되면 전국적인 나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트럼프는 “거짓말”이라며 “각 주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방어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벌어진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왜 그들은 처벌하고 불법 이민자는 방관하고 있다고 반문을 했다.

트럼프는 90분 내내 정면, 카메라만 응시했다.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 단 한 번도 해리스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치 ‘내 할 말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은 인상이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흔들거나 아이없다는 듯한 웃음을 종종 지었다. 아예 몸을 15도 정도 트럼프 쪽으로 돌리고 얼굴을 보며 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래도 노련했고, 해리스는 우려보다 훨씬 선전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토론이 끝나자마자 본인의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라는 글을 올렸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NS 팔로워가 약 3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크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병원 공습으로 파괴된 레바논 구급차



지난 4일(현지시각) 레바논 남부 마르자윤의 한 병원 밖에 있던 트럭과 구급차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불타고 있다. 레바논 병원들이 폭격을 받으면서 의료진이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생한 느낌의 몰입형 전시 ‘오션 오디세이’



4일(현지시각)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피닉스 데 루미에르’(Phoenix des Lumieres) 전시회 관람객들이 옛 철강 공장 벽에 투영된 시청각 전시 ‘오션 오디세이’를 감상하고 있다. ‘오션 오디세이’는 바다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주제로 한 몰입형 시청각 전시로 해양 생태계의 다양한 장면을 거대한 규모로 투영해, 방문객들이 비탄속을 탐험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